



미국,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득 감소폭 확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전 통계국 간부인 고든 그린과 존 코더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가계소득이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 기간보다 금융위기 이후에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가계소득 중간값이 금융위기 기간인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.2% 감소한 반면,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6.7% 감소함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가계 소득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.
 - 3년 6개월 만에 가계소득이 9.8%나 감소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, 이는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미국경제와 정치권에 대한 냉소적 반응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됨.
-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실업률이 소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실업 기간의 장기화와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 증가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 -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실업자의 평균 실직 기간은 2007년 12월 16.6주에서 2009년 6월 24.1주로 증가했으며, 금융위기 이후에도 평균 실직기간은 계속 증가하면서 2011년 9월에는 60년 만에 가장 긴 40.5주를 기록함.
 - 또한, 금융위기 당시 실직한 많은 근로자들이 재고용되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면서 임금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으며, 프린스턴 대학의 헨리 파버 교수는 금융위기에 실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임금이 이전 직장보다 평균 17.5% 감소한 것으로 분석함.
 - 한편, 고든과 코더의 연구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 정도가 확대되었으며,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감소(12.3%)가 공공부문(3.9%) 및 민간부문(4.3%) 근로자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함.

(New York Times, 10/9)